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1, No. 1, 2009. 2, pp. 57-7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구 인 회+
(서울대학교)
박 현 선
(세종대학교)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김 광 혁
(전주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3개년에 걸쳐 종단적으로 관찰된 빈곤경험이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빈곤경험을 지속빈곤, 일시빈곤, 비빈곤으로 나눠 발달산물을 비교한 결과, 학업성취에서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사이의 격차가 두드러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빈곤경험과 발달궤적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에서는 비빈곤아동은 시간이 갈수록 성취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 변화방향을 보이나 빈곤아동은 성취수준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변화방향을 보였다. 또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비행의 발달궤적 변화에서는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아동의 개인적, 가족적 특성을 통제한 결과 빈곤의 영향은 학업성취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제어 : 빈곤, 아동발달, 발달궤적, 학업성취, 사회정서 발달, 문제행동

* 본 연구는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5-411-J09501).
+ 주저자

1. 서론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나타난 큰 변화 중 하나는 빈곤이 핵심적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수십년에 걸친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과거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광범위한 빈곤은 크게 축소되었고 달동네의 도시빈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 소수 취약계층의 문제가 일시적인 관심을 끌 뿐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전 5% 미만으로 추정되던 우리사회의 절대빈곤층은 전인구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증대되어 사회정책상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절대빈곤의 증가는 빈곤이 전통적인 취약계층 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년층의 양부모가구 등 일반가구의 문제로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2003년 이후 아동빈곤율이 9%를 전후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김미숙 외, 2007).

이러한 빈곤의 양적 증가와 함께 빈곤의 질적 변화에 대해서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빈곤아동의 문제가 커지면서 이제 빈곤이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를 이어 전승되는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우리사회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언론 등에 자주 등장하였다. 즉 성인의 빈곤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아동의 정상적인 발전기회를 제약하여 빈곤을 재생산하는 세대간의 문제로 고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빈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의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특히 그 해악이 매우 크고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매우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발육부진, 발달지체 등과 같은 신체발달의 문제에서 저(低)지능, 학업부진, 학교중퇴 등과 같은 인지발달의 문제, 반사회적 행동, 주의력 결핍 등과 같은 심리사회발달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McLanahan and Snadefur, 1994; Haveman and Wolfe, 1995; Duncan and Brooks-Gunn, 1997).

더욱이 아동의 빈곤 경험은 발달단계상의 특성으로 인해 그 부정적 영향이 평생의 복리수준에 누적적인 양상을 띠고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많다(McLanahan and Sandefur, 1994). 서구의 다수의 연구는 아동기의 행동상의 문제와 학구적 발달상의 문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고교중퇴나 비행, 육체적·정신적 건강문제, 실업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eidman, LaRue, Aber, Mitchell and Feinmann, 1994).

이러한 아동빈곤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는 아직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일부 연구가 아동의 학업성취나 사회정서적 문제 등에 미치는 빈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구인회·박현선·정익중, 2006; 박현선·정익중·구인회, 2006; 김광혁, 2008). 그러나 아동의 학업성취와 사회정서적 문제 등을 모두 포괄하여 빈곤의 영향을 비교, 분석한 예는 없다. 더욱이 이들 일부 연구는 횡단적 성격의 자료를 분석할 뿐이어서 빈곤의 지속성이나 빈곤의 시점 등 빈곤 경험의 종단적 차원이 아동발달과 가지는 관련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연구의 부족으로 우리나라에서 빈곤과 아동발

달의 관계 양상은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빈곤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04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1,785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종단적 조사인 '서울 아동발달 및 복지실태 조사' 2004-2006 3개년 자료를 이용한다. 우선 본 연구는 빈곤이 다양한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는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주의집중 문제와 같은 사회정서적 발달, 그리고 아동의 공격성과 비행 등 행동상의 문제 세 가지 발달 영역의 여섯 가지 발달 산물을 대상으로 빈곤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다. 또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를 연구한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빈곤경험은 조사 아동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3개년에 걸쳐 관찰된 것이어서 빈곤의 영향이 나타나는 양상을 그 지속성이나 시점 등 종단적인 차원에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의 빈곤의 영향을 검토한 횡단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선다.

2. 이론적 논의

빈곤이 아동의 발달 산물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는 다양한 이론적 배경에서 다양한 논리구조로 설명되어 왔다. 인적자본이론은 빈곤과 학업성취발달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주로 인용되는 이론이다(Becker and Tomes, 1986). 한편, 아동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인지적 정보처리과정에서는 인지발달 과정과 비행 행동을 연관시켜서 논의하고 있고, 가정 내 정서적인 상호과정에 초점을 맞춘 적대적 상호작용 이론(Conger et al., 1994)에서는 빈곤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를 설명하는 논거를 제공한다. 각 발달 영역별로 주요 이론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학업성취 경우를 보면, 인적자본이론에서는 부모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금전적 자원과 시간을 청소년의 인적자본 형성에 투자한다고 본다(Becker and Tomes, 1986). 그런데 소득수준이 낮은 부모에게는 자녀 교육의 기회비용이 매우 높다. 자녀 학비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경우 빈곤부모는 의식주에 소요되는 필수적 생활비에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은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의 수준을 낮추게 되고, 그 결과 아동의 학업 성취 수준이 저하된다. 예컨대, 빈곤가족은 학습도구의 구입이나 사교육 등 자녀의 교육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적절히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빈곤이 아동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사회적 정보처리이론(social information-processing theory)에 따르면 아동의 비행은 특정 상황에서 갈등적이거나 일탈적인 해결책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인지능력의 결핍 때문에 일어난다(Dodge, 1993; Crick and Dodge, 1994; Chung, 2004). 빈곤가족은 인지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책, 장난감, 컴퓨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를 인지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시키기 어렵다(Mayer, 1997; Gerard and Buehler, 1999; Seccombe, 2000; 정

익중, 2003). 따라서 빈곤은 인지능력의 부족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인지능력이 높으면 특정 갈등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생각해내고 그 중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아동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공격성이 높으면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cues)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신호에만 선별적으로 관심을 집중한다(Dodge and Newman, 1981). 그리고 신호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며, 무슨 신호든 그 의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귀인시켜 버리는 편견(attributional bias)을 보인다(Dodge and Feldman, 1990; Dodge and Coie, 1987). 또한 초기 반응이 성공적이지 않았을 때 다른 종류의 반응을 찾아내는 것도 어려워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비행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비행을 가장 적절한 반응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Dodge, Bates, and Pettit, 1990).

또한 빈곤아동들은 수준 높은 단어의 사용이 제한되고 글씨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등 언어발달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아동의 언어능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다수 빈곤부모들이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등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직업을 가져 시간이 없거나 피곤하고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어능력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 갈등상황에서 언어적 방법을 통한 이해와 설득보다는 강압과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쉽다.

한편 Conger 등의 연구(1994)에서는 Patterson(1982)의 적대적 상호작용이론에 근거하여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Conger 등(1994)은 빈곤 가정의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일반적인 생활상의 갈등이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한 갈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부모의 우울수준이 높아지고,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간의 재정적 갈등이 고조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부정적, 적대적으로 대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부모와의 누적적인 적대적 상호작용의 결과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논리다.

요컨대, 각각의 이론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상이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경로보다는 어떠한 맥락적, 과정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설명요인들에 대한 논의는 생태체계적 모델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정리되었다. 다양한 선행 연구들은 빈곤의 영향을 생태학적 발달의 개념틀에 근거하여 시간에 따른 개인과 환경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했다(McLoyd, Jayaratne, Ceballo, and Borquez, 1994). 생태체계적 모델에서는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모의 심리적인 디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부부관계의 문제와 비일관적이거나 강압적인 양육전략, 학업에 대한 낮은 기대, 지도감독의 소홀 등으로 이어지면서 아동에게 낮은 자존감, 우울, 학업성취의 저하, 높은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생태체계적 모델에서는 가족 과정에서 부모의 성격이나 아동의 기질과 같은 미시체계의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생태체계적 맥락이 작용하게 됨을 강조하였다(Bradley and Whiteside-Mansell, 1997).

빈곤과 아동발달에 관해 분석한 서구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아동의 건강상태, 지적능력, 학업성

취 등 다양한 영역의 발달에 대해 빈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해 왔다(Haveman and Wolfe, 1995; Duncan and Brooks-Gunn, 1997). 빈곤은 또한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반사회적 행동, 비행,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Leod and Shanahan, 1993; Duncan and Brooks-Gunn, 1997).

서구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빈곤이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발달 영역별로 빈곤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시사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빈곤의 영향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이나 비행보다는 학업성취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uncan and Brooks-Gunn, 1997; Pagani et al., 1997; McLoyd, 1998).

또 서구의 연구들은 아동발달에 대한 빈곤의 부정적 영향은 빈곤의 지속기간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Korenman, Miller, and Sjaastad(1995)는 장기빈곤이 단기빈곤에 비해 아동의 인지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Pagani, Boulerice and Tremblay(1997)은 단기빈곤은 유급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기빈곤은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사회정서적 발달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지속적 빈곤에 놓인 아동일수록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많은 반면에 일시적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들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알려져 왔다(Duncan, Brooks-Gunn, and Klebanov, 1994; McLeod and Shanahan, 1993).

국내에서는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드물다. 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 힘든 국내 현실 때문에 대다수 기존 연구들은 빈곤아동만을 대상으로 발달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었다. 대다수 연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세대 아동 등(강희경, 2003; 오승환, 2000; 이민호 외, 2004; 허남순 외, 2003; 오은순, 1997; 이경혜, 2004; 윤혜미, 2005)과 같이 공공부조 대상자, 특정기관의 사회적 서비스 이용자 여부로 빈곤아동을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적 발달이나 행동상의 문제를 분석하였을 뿐 빈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예는 매우 부족하다.[1)]

최근 소수의 연구에서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을 보고하였다(구인회·박현선·정익중, 2006; 김광혁, 2008). 사회정서적 발달 영역에서는 빈곤이 다양한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현선·정익중·구인회, 2006). 그러나 이들 연구도 특정 발달영역에 국한하여 연구가 수행되어 아동발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빈곤이 다양한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예는 전무하다.

또 대다수 국내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자료가 횡단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의 교육성취를 분석한 일부 연구가 패널자료를 이용한 예는 있지만(구인회, 2003), 초등학생과 같은 아동기의

1) 국내의 대다수 기존 연구들은 빈곤아동의 표집 방법이나 빈곤의 측정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빈곤관련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여 빈곤 아동을 표집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를 통해 빈곤아동을 정의하였기 때문에 빈곤아동의 발달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오승환, 2000; 허남순 외, 2003). 또 가족소득을 아동에게 질문하여 파악함으로써 소득 파악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발달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예는 없다. 따라서 국내 기존 연구는 장기빈곤과 단기빈곤, 현재빈곤과 과거빈곤 등 빈곤 경험의 시간적 차원이 아동발달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국내의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가 서구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관계가 어떠한 특수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은 '서울 아동발달 및 복지실태 조사'(이하 서울아동패널) 2004-2006 원자료를 이용한다. 서울아동패널은 서울지역의 11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785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종단적 조사(panel survey)이다. 서울아동패널은 서울지역의 한 자치구를 선정하여 자치구 내의 전체 초등학교를 저소득지역 학교 6개교)와 비저소득지역 학교 5개교로 층화하여 저소득지역 학교를 과대표집하는 방식으로 표집 및 조사가 이루어졌다. 서울아동패널에서는 학업성취, 사회정서적 발달, 비행, 건강 등 아동의 다양한 발달지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소득 등 기본적인 가족배경 변수는 물론 가족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가족환경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1차년도인 2004년에 11개 초등학교 4학년인 아동과 그 부모 1785사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아동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교실에서 행하는 집단 면접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을 통해 전달된 설문지에 부모가 자기기입(self-report)하고 밀봉하여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아동이 5학년이 된 2차 년도와 6학년이 된 3차 년도에도 조사방식은 같았으며, 1차년도 조사사례를 기준으로 2차 년도에는 92.9%인 1677사례가 조사되었으며, 3차 년도에는 86.6%인 1546사례가 조사되었다.

2) 주요 변수 측정 및 실태

(1) 주요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아동의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주의집중, 공격성, 비행이다. 먼저 학업성취도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학년별 수준을 고려하여 작성된 각각 15점 만점의 국어와 수학 학업성취도 테스트를 실시하여 합계 점수로 측정되었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3개년 간의 발달궤적 분석에서는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점수가 사용되었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원 점수가 사용되었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사회정서적 발달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내재화 문제인 아동의 우울·불안과 주의력 결핍 문

제, 대표적인 외현화 문제인 공격성과 비행 등을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로는 Achenbach(1991)의 YSR을 오경자 등(1998)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표준화한 K-YSR 문항 중에서 우울·불안과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비행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발달의 척도는 Cronbach's α 값을 통해 검증한 결과 모두 신뢰수준이 안정적으로 높게 나타나 분석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1〉 참조).

〈표 1〉 변수의 정의와 기술 통계치

변수(변수명)	변수정의	1차년도 평균, 비율 (표준편차)	2차년도 평균, 비율 (표준편차)	2차년도 평균, 비율 (표준편차)
학업성취도	국어, 수학시험 성적 합	19.28 (4.37)	20.41 (4.73)	22.75 (4.84)
우울·불안*	CBCL 우울·불안	19.50 (4.79, α=.818)	17.76 (4.35, α=.832)	16.97 (4.06, α=.837)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30.04 (4.97, α=.768)	30.60 (5.01, α=.852)	31.07 (5.17, α=.864)
주의집중	CBCL 주의집중	16.18 (3.96, α=.786)	15.24 (3.66, α=.793)	14.57 (3.40, α=.790)
공격성*	CBCL 공격성	25.50 (5.07, α=.831)	23.78 (4.32, α=.814)	22.86 (3.88, α=.805)
비행*	CBCL 비행의 합	13.98 (2.05, α=.640)	13.51 (1.70, α=.609)	13.27 (1.48, α=.576)
가족빈곤 현재 빈곤 (%)	3차년도 빈곤 여부 (비빈곤=0)	7.2		
과거 빈곤 (%)	1, 2차년 중 한번 만 빈곤 1, 2차년 모두 빈곤 3차년도만 빈곤 (비빈곤=0)	10.8 4.3 3.6 81.3		
지속빈곤 (%)	1-3차년 모두 빈곤 1-3차년 중 1년 또는 2년 빈곤 (비빈곤=0)	2.7 9.5 87.8		
가족구조 (%)	한 부모 가족 계부모 가족 양친부모 가족	3.5 3.1 93.4		
부모 학력(%)	고졸 대학입학 이상 고졸 미만	51.2 41.2 6.6		
아동 성별 (%)	여성 남성	48.0 52.0		
출산 시 건강	출산 시 저체중, 조기분만, 중환자실 입원 및 인큐베이터 사용여부 (비해당=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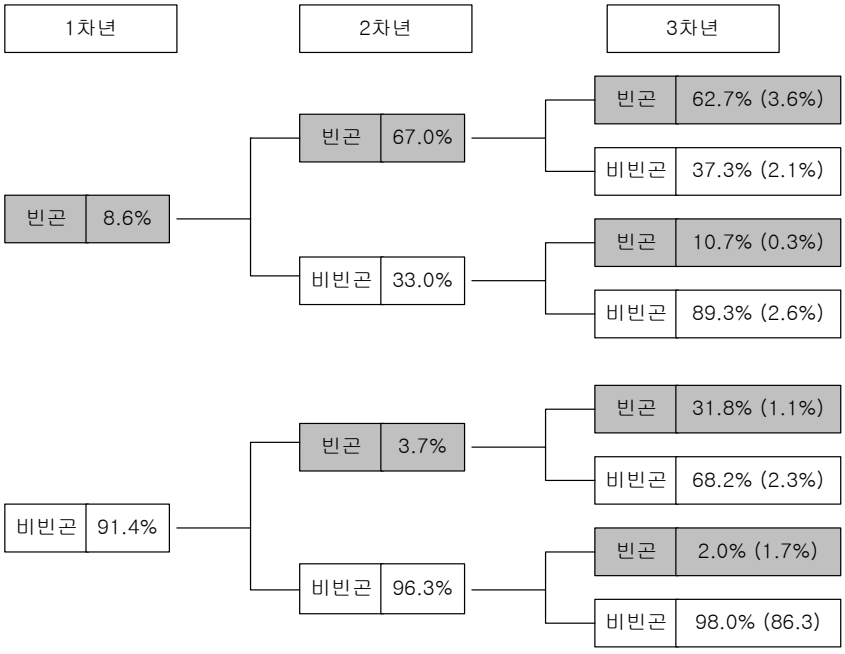
자료: 서울아동패널 2004-2006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빈곤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가족소득의 월 평

균치(만 원 단위)로 측정된 가족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족은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온 여타의 개인적, 가족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소득, 빈곤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하여 다수의 통제변수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통제변수로는 기존 연구에서 아동 발달과 주요하게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아동 성별, 아동의 출산 시 건강 변수 등이 포함되었다. 부모 학력은 아동의 모 학력으로 측정하되 모가 없을 경우에는 부의 학력을 이용하였다. 가족구조는 양부모가족과 한 부모가족, 계부모가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되었으며, 아동의 출산 시 건강 변수는 저체중이나 조기분만 등 출산 시 문제가 있었으면 1, 없었으면 0으로 더미코딩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동에 대한 자원과 시간의 효과적인 투자나 적절한 양육방식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구조는 가족 내외의 사회적 자본과 같은 양육자원이나 양육행위를 변화시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성별은 모든 발달영역에서 차이를 낳는 중요한 개인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저체중 등 출산 시 건강 또한 아동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McLanahan and Snadefur, 1994; Haveman and Wolfe, 1995).



(3차년도 ( )의 수치는 전체 사례에 기초한 비율, 자료: 서울아동패널 2004-2006)

〈그림 1〉 아동의 빈곤경험

4. 분석결과

1) 아동의 빈곤경험과 발달산물의 상관관계

(1) 아동의 빈곤경험과 발달상태

〈그림 1〉은 서울아동패널의 표본아동들의 2004년에서 2006년에 이르는 3년 간의 빈곤경험을 요약한 것이다. 조사 1차년도인 2004년에는 전체 아동 중 8.6%의 아동이 빈곤을 경험하였다. 이 빈곤아동 중 삼분의 이에 해당하는 67%는 2005년에도 빈곤 상태를 지속하였고 이들 2차년도 빈곤아동의 62.7%는 3차년도에도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1차년도 전체아동을 기준으로 그 3.6% 정도는 3년 내내 빈곤을 경험하는 지속적 빈곤상태에 있었다.

반면에 1차년도에 빈곤하지 않은 아동 중 96.3%는 2차년도에도 빈곤하지 않았고 그 98%는 3차년도에도 비빈곤상태를 유지하였다. 1차년도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볼 때 약 86.3%의 아동은 3년 내내 한번도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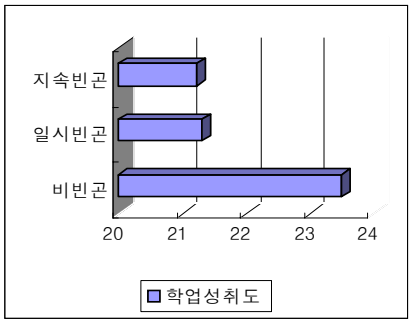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지속적 빈곤아동 3.6%와 지속적 비빈곤아동 86.3% 이외의 10.1%의 아동은 3년의 기간 동안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일시적 빈곤아동 중에서 3년의 관찰 기간 동안 비빈곤상태에 있다가 빈곤에 빠져드는 빈곤진입 경험을 한 아동이 전체 아동의 약 5.1%, 빈곤상태에 있다가 빈곤을 탈출하는 빈곤탈출 경험을 한 아동이 전체 아동의 약 5%였다. 이 5%의 아동 중에는 매우 소수(전체 아동의 0.3%)이지만 2004년에 빈곤상태에 있다가 2005년에는 빈곤을 벗어난 후 2006년에는 다시 빈곤에 재진입하는 빈곤회귀의 경험을 하는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에서는 아동의 빈곤지위별로 6가지 발달산물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동의 빈곤지위는 3개년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산물 변수는 3차년인 2006년도의 측정치가 사용되었다. 발달산물의 측정에 3개년 자료를 이용할 경우, 3차년도 빈곤 경험이 1차나 2차년도의 발달산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표 2〉에서는 빈곤지위별 발달산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ANOVA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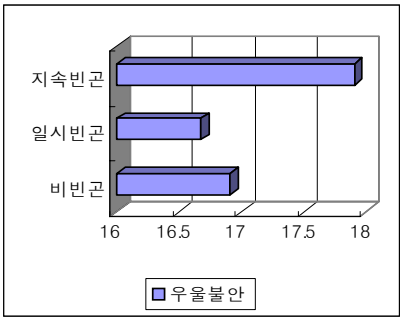
학업성취의 경우에는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사이의 격차가 두드러지고 지속빈곤과 일시빈곤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으며, 특히 비빈곤과 지속빈곤 집단 간 차이, 그리고 비빈곤과 일시빈곤집단 간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우울·불안은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지속빈곤 아동과 나머지 아동 사이에서 우울·불안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일시빈곤과 비빈곤 사이에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울·불안의 빈곤지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패널 (E)의 공격성이나 (F)의 비행 또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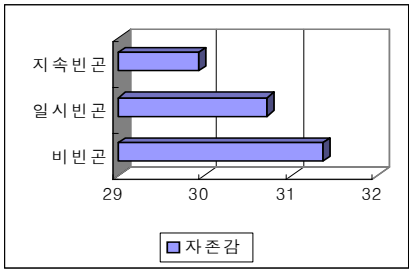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은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는 서구의 연구와는 일치하지만,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는 일시적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서구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McLeod and Shanahan, 1993).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모두 지속적 빈곤 아동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격성이나 비행 역시, 빈곤지위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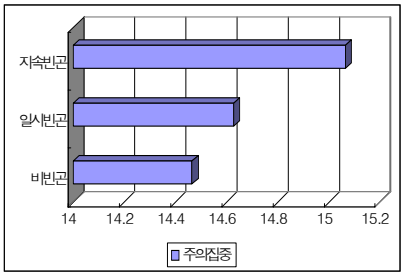
(A) 학업성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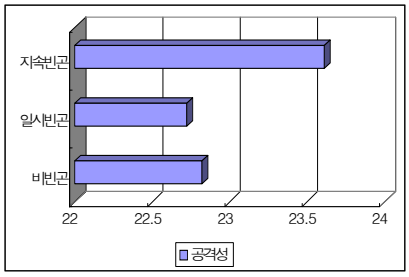
(B) 우울·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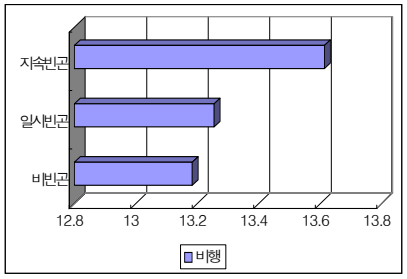
(C) 자아존중감



(D) 주의집중



(E) 공격성



(F) 비행

〈그림 2〉 빈곤지위별 아동 발달산물의 비교 (자료: 서울아동패널 2004-2006)

다음으로 패널 (C)를 보면, 지속빈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일시빈곤

아동도 비빈곤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다소 낮은 상태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주의집중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지속빈곤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정도를 보이지만, 일시빈곤과 비빈곤 아동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나 주의집중 문제 역시, 지속빈곤, 일시빈곤, 비빈곤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빈곤지위별 발달수준 차이 검증

	구분	평균(표준편차)	F비
학업성취도	비빈곤	23.48(4.42)	13.765***
	일시빈곤	21.31(4.75)	
	지속빈곤	21.37(5.33)	
우울·불안	비빈곤	16.91(4.04)	1.171
	일시빈곤	16.67(3.46)	
	지속빈곤	17.90(4.36)	
자아존중감	비빈곤	31.37(5.12)	.575
	일시빈곤	30.72(4.57)	
	지속빈곤	29.93(4.43)	
주의집중문제	비빈곤	14.46(3.35)	1.861
	일시빈곤	14.62(3.06)	
	지속빈곤	15.06(4.04)	
공격성	비빈곤	22.82(3.88)	.668
	일시빈곤	22.72(3.89)	
	지속빈곤	23.61(4.27)	
비행	비빈곤	13.18(1.44)	1.426
	일시빈곤	13.25(1.45)	
	지속빈곤	13.61(1.11)	

자료: 서울아동패널 2004-2006
주: *** p〈.001,

(2) 아동의 빈곤경험과 발달궤적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발달산물의 수준만이 아니라 발달의 궤적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간 아동발달의 궤적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주의력 결핍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아동기에서 청소년 중기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 선행 연구는 문제를 어떻게 측정하고, 문제에 대한 보고를 누가 하느냐 등에 대한 방법론적인 차이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집단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감소하고, 임상사례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다(Mash and Dozois, 1996; 정명숙 외, 2001).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동의 성

숙에 따라 문제행동의 자연스런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임상 사례가 아니라 아동 중기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일반 아동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선행연구와 부합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의 감소 경향은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패널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정소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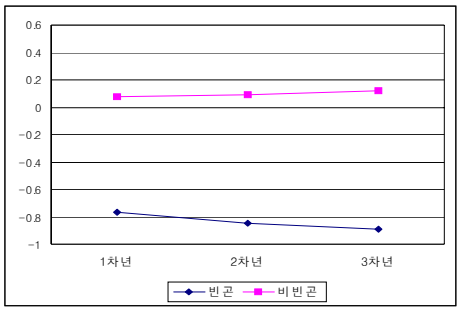
정소희(2007)는 또한 문제행동의 일반적 감소경향이 성별, 가족구조별, 부모교육수준별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빈곤지위별로도 동일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정소희,2007). 본 연구에서는 아동중기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빈곤지위별로 발달궤적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2] 이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기존 연구가 시사하듯, 긍정적인 발달산물의 증가경향과 부정적인 발달산물의 감소경향이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3〉에서는 1차년도의 빈곤지위를 기준으로 2004년에서 2006년에 이르는 3년간의 여섯 가지 아동발달산물의 변화궤적을 비교하였다. 1차년도의 빈곤지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빈곤아동은 2차, 3차년도에는 빈곤을 탈피한 경우도 있다. 또 1차년도에 빈곤하지 않아 비빈곤아동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2차, 3차년도에는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섞여 있다. 따라서 〈그림 3〉의 빈곤지위 분류는 다소의 측정오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3개년간의 발달궤적을 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3차년도의 빈곤경험이 1차, 2차년도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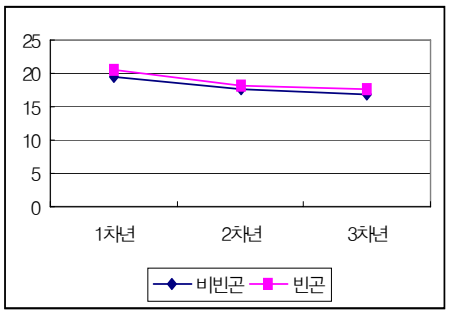
분석결과, 학업성취를 제외한 발달지표에서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발달궤적은 유사한 방향을 보였다. 즉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모두 해가 갈수록 우울·불안,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비행 등이 감소하는 긍정적 변화 방향을 보였다. 그러나 학업성취에서는 비빈곤아동은 해가 갈수록 성취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 변화방향을 보이나 빈곤아동은 해가 갈수록 성취수준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변화방향을 보였다. 이렇게 빈곤지위별로 학업성취의 변화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는 학업성취의 경우 빈곤은 발달수준 뿐만 아니라 발달궤적에도 영향을 미쳐 그 영향이 매우 심대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빈곤이 학업성취의 궤적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빈곤이 학업성취를 낮추고, 한번 낮아진 학업성취는 다음 단계의 학업성취 수행능력을 떨어뜨리는 누적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arneiro and Heckman, 2003).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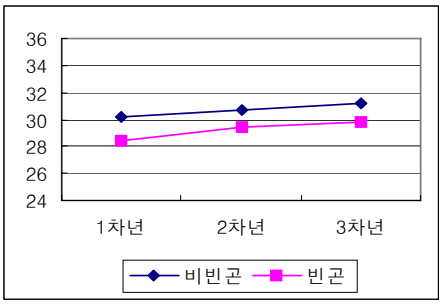
2) 아동발달단계별로 발달궤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발달과정에서 매우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le et al., 2001; 정익중, 2006).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전환기가 존재한다. 청소년기 초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입학, 사춘기의 시작, 형식적·조작적 사고의 발달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기이다(정익중, 2007). 그러나 이 시기 전에는 비교적 높은 자아존중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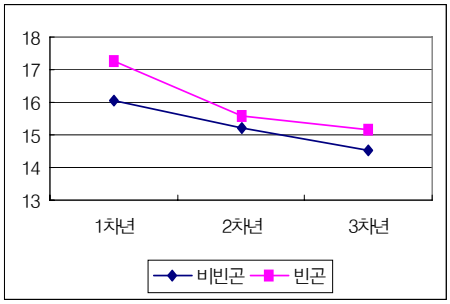
(A) 학업성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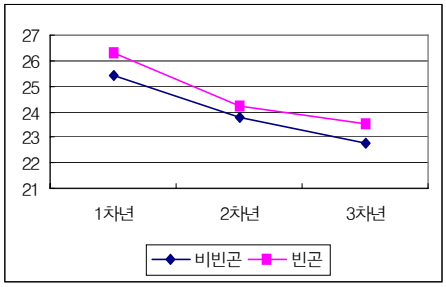
(B) 우울·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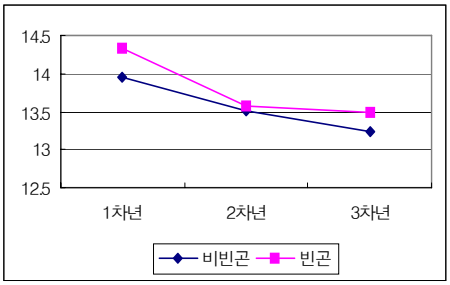
(C) 자아존중감



(D) 주의집중 문제



(E) 공격성



(F) 비행

〈그림 3〉 빈곤지위별 아동 발달산물 변화궤적 비교 (자료: 서울아동패널 2004-2006)

〈그림 3〉의 분석결과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일부 발달산물의 경우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정도가 다소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된다. 우울·불안이나 자아존중감의 경우 3개년도에 걸쳐 빈곤아동이 비빈곤아동 만큼이나 긍정적인 변화정도를 보인다. 그러나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비행 지표의 경우 2차년도에서 3차년도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 개선정도에서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발견으로 볼 때, 학업성취 이외의 발달산물, 특히 외현화 행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빈곤경험이 발달궤적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 아동의 빈곤경험이 발달산물에 미치는 영향

(1) 현재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표 3〉에서는 3차년도인 2006년을 기준으로 현재 빈곤이 아동발달 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빈곤의 영향은 3차년도에 빈곤하지 않은 아동을 기준으로 3차년도에 빈곤한 아동의 발달산물을 비교하여 추정된 것이고, 1,2차년도의 빈곤지위는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이들 다양한 아동발달 산물 중 학업성취만이 현재 빈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빈곤한 아동은 빈곤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국어와 수학의 합계점수가 1.5점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위의 분석모형들에 빈곤 대신 범주화된 욕구소득비(소득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값을 범주화)를 투입한 결과에서도 욕구소득비가 1 미만인 경우에만 욕구소득비 2-3인 경우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 학교별 차이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학교더미 변수를 추가한 경우에도 위의 변수들의 영향력에서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횡단적 분석: 3차년도 결과

변수	학업성취	우울불안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공격성	비행
성별 (남자 아동=0)	.595* (.236)	.833*** (.210)	.039 (.267)	-.372* (.176)	-.210 (.201)	-.354*** (.076)
부모학력						
고졸	1.065* (.478)	-.311 (.426)	.748 (.540)	.103 (.359)	.027 (.411)	-.207 (.155)
대학 입학 이상 (고졸 미만=0)	2.694*** (.496)	-.189 (.442)	1.427* (.560)	.210 (.373)	-.005 (.426)	-.361* (.161)
빈곤						
현재빈곤 여부 (현재 비빈곤=0)	-1.584** (.528)	.418 (.467)	-.797 (.596)	-.005 (.391)	-.269 (.453)	.122 (.170)
가족구조						
한부모	-2.063** (.636)	.591 (.563)	-1.459* (.723)	1.152* (.482)	.930 (.545)	-.037 (.209)
계부모 (양부모가족=0)	-.689 (.746)	-.991 (.644)	.194 (.813)	-.093 (.541)	-.898 (.611)	-.253 (.232)
출산건강	-1.381** (.437)	-.211 (.389)	.609 (.494)	.191 (.326)	-.573 (.369)	-.059 (.142)
상수	21.301*** (.599)	16.332*** (.537)	30.332*** (.533)	14.101*** (.452)	22.961*** (.516)	13.691*** (.153)
Adj. R^2	.133	.019	.027	.010	.013	.023
N	1439	1484	1468	1492	1493	1493

자료: 서울아동패널 2006.
주: * p〈.05, ** p〈.01, ***p〈.001

학업성취 이외의 다른 발달산물의 경우에는 아동의 가족적,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결과 빈곤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그림 2〉에서의 빈곤지위별 발달산물 비교 결과와 차이가 나는 결과로서, 빈곤지위와 아동발달산물의 상관관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빈곤가족이나 빈곤아동의 다른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와 빈곤이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은 것은 박현선 외(2006)의 결과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는 주로 부모 교육, 출산 시 건강 등 추가적인 통제변수가 빈곤의 영향을 축소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의 경우, 빈곤 이외에도 성별이나 부모학력, 한부모 가족여부, 출산 시의 아동의 건강상태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발달산물의 경우에는 빈곤 변수만이 아니라 많은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성별이 우울·불안, 주의집중,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의 경우, 대입 이상인 경우와 고졸 미만인 경우의 사이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비행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여부 변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의집중에 관련을 보였다. 학업성취 이외의 발달산물의 모형에서는 전체 변수에 의한 설명력도 0.01에서 0.02대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2) 빈곤 시기와 지속기간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표 4〉에서는 현재 빈곤이 유의미한 관련을 보인 학업성취 산물을 종속변수로 하여 현재빈곤과 과거빈곤의 영향, 지속적 빈곤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다른 변수의 영향은 〈표 2〉의 결과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이므로 여기에서는 빈곤의 영향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모형 I에서는 현재(3차년도) 빈곤 변수에 과거의 빈곤 경험 여부(1, 2차년도 중 한 해라도 빈곤을 경험하였는지) 변수를 추가하였다. 현재 빈곤의 영향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과거 빈곤 경험 변수는 현재 빈곤과 독립적으로 학업성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에서는 과거 빈곤 경험을 조금 더 세분하여 과거의 지속적 빈곤(1, 2차년도 모두 빈곤했던 경우)과 과거의 일시적 빈곤(1, 2차년도 중 한 해만 빈곤했던 경우)을 구분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어느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빈곤은 회귀계수의 크기가 감소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잃었으나, 과거의 지속빈곤(2년 모두 빈곤) 변수는 회귀계수가 큼에도 표준오차가 커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지속적 빈곤은 현재의 빈곤과 독립적으로 그리고 현재의 빈곤보다 크게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모형 III에서는 현재 빈곤과 과거 빈곤의 구분 없이 빈곤의 지속성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모형 I 이나 모형 II와는 달리 3년 모두 빈곤이 생략범주가 된다. 분석 결과 일시적 빈곤(3년 중 1년 혹은 2년간 빈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으나 지속적 빈곤(3년 모두 빈곤)은 그렇지 않아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 빈곤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표준오차가 큰 것에 기인(3년 모두 빈곤한 아동은 전체 아동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지속적 빈곤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속단이라 하겠다.

〈표 4〉 빈곤이 아동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1-3차년도 결과

변수	학업성취		
성별 (남자 아동=0)	.586* (.236)	.559* (.236)	.566* (.236)
부모학력 (고졸 미만=0)			
고졸	.945 (.481)	.987* (.483)	1.016** (.479)
대학 입학 이상	2.475*** (.503)	2.517*** (.502)	2.548*** (.499)
빈곤			
과거빈곤Ⅰ			
1,2차년 중 한 해 이상 빈곤 (1,2차년도 모두 비빈곤=0)	-.999** (.422)		
현재(3차년도) 빈곤 (현재 비빈곤=0)	-1.513* (.722)		
과거빈곤Ⅱ			
1,2차년 모두 빈곤		-1.222 (.713)	
1,2차년 중 한해 빈곤 (1,2차년도 모두 비빈곤=0)		-.652 (.566)	
현재(3차년도) 빈곤 (현재 비빈곤=0)		-.639 (.418)	
지속빈곤 여부			
3년 지속빈곤			-.944 (.873)
1, 2년 일시빈곤 (3년 모두 비빈곤=0)			-1.108* (.469)
가족구조			
한부모	-1.928** (.638)	-2.014** (.639)	-2.036** (.638)
계부모 (양부모가족=0)	-.646 (.745)	-.800 (.744)	-.739 (.744)
출산건강	-1.381** (.436)	-1.345** (.436)	-1.341** (.435)
상수	21.627*** (.609)	21.658*** (.609)	21.258*** (.487)
Adj. R^2	.136	.138	.138
N	1439	1439	1439

자료: 서울아동패널 2004-2006, 주: * p〈.05, ** p〈.01, ***p〈.001

3) 1-2차년도 자료분석 결과와의 비교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서울아동패널은 2004년 아동 1785에 대한 조사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차, 3차의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사아동 중 멸실사례가 발생하였고, 특히 3차년도의 멸실률이 크다. 만약 멸실된 아동들이 표본에 남아있는 아동들과 주요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면, 3개년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는 표본선택의 편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표본에서 멸실된 아동이 주로 빈곤가구이나 취약가구의 아동이라면 빈곤 등의 가구 특성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추정될 수 있다.

〈표 5〉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적 멸실사례가 적은 2차년도까지의 자료만을 이용

하여 앞의 〈표 3〉과 동일한 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빈곤 변수의 영향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빈곤은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 효과를 보였고 대부분의 다른 발달산물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유일한 차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빈곤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다.

빈곤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도 앞의 분석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아동성별이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인 점, 부모학력과 비행의 관련이 사라진 점, 한부모 여부가 학업성취와는 관련을 보이지 않고 우울·불안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인 점 정도가 특기할 만하다.

〈표 5〉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횡단적 분석: 2차년도 결과

변수	학업성취	우울불안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공격성	비행
성별 (남자 아동=0)	1.302*** (.224)	.614** (.222)	.377 (.253)	-.405* (.187)	-.438* (.218)	-.531*** (.085)
부모학력						
고졸	.766 (.491)	-.273 (.495)	.467 (.572)	-.260 (.411)	-.466 (.482)	-.133 (.186)
대학 입학 이상 (고졸 미만=0)	2.282*** (.504)	-.341 (.508)	1.199* (.586)	.463 (.421)	-.726 (.493)	-.291 (.191)
빈곤						
현재빈곤(2차년도) 여부 (현재 비빈곤=0)	-1.740** (.425)	.272 (.426)	-.978* (.480)	.139 (.358)	.606 (.416)	.303 (.164)
가족구조						
한부모	-.836 (.636)	1.849** (.629)	-2.109** (.716)	1.610** (.533)	.953 (.617)	.405 (.243)
계부모 (양부모가족=0)	-1.451* (.675)	.155 (.672)	-.309 (.758)	.005 (.572)	-.208 (.653)	-.162 (.254)
출산건강	-1.122** (.418)	-.504 (.410)	.248 (.475)	-.055 (.352)	-.294 (.410)	.022 (.160)
상수	13.648*** (.615)	17.099*** (.614)	29.355*** (.703)	15.654*** (.511)	24.410*** (.598)	13.848*** (.232)
Adj. R^2	.122	.021	.034	.017	.017	.047
N	1506	1510	1510	1511	1511	1503

자료: 서울아동패널 2005
주: * p〈.05, ** p〈.01, ***p〈.001

다음으로 〈표 6〉에서는 1-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 시점과 빈곤의 지속성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모형에서는 현재 빈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과거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앞의 3개년 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와는 달리 현재 빈곤과 독립적으로 과거 빈곤이 아동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모형에서 빈곤 지속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2년 연속빈곤과 1년만 빈곤을 경험한 일시적 빈곤 변수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일시적 빈곤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고 지속적 빈곤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아동 학업성취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3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앞의 〈표 4〉의 결과와 종합하면, 과거빈곤은 현재빈곤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일시적 빈곤에 비해 지속적 빈곤이 학업성취에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1-2차년도 결과

변수	학업성취	
	과거 빈곤모형	연속 빈곤모형
성별 (남자 아동=0)	1.345*** (.226)	1.356*** (.226)
부모학력 (고졸 미만=0)		
고졸	.775 (.497)	.776 (.498)
대학 입학 이상	2.319*** (.510)	2.331*** (.511)
빈곤		
과거(1차년도) 빈곤 (과거 비빈곤=0)	.109 (.555)	
현재(2차년도) 빈곤 (현재 비빈곤=0)	-1.781** (.519)	
2년 지속 빈곤		-.921** (.279)
1년 일시빈곤 (2년 모두 비빈곤 = 0)		.221 (.543)
가족구조		
한부모	-.846 (.639)	-.878 (.640)
계부모 (양부모가족=0)	-1.472* (.677)	-1.415* (.679)
출산건강	-1.027* (.422)	-1.032* (.423)
상수	18.621*** (.620)	18.585*** (.621)
Adj. R^2	.123	.120
N	1485	1485

자료: 서울아동패널 2004-2005
주: * p〈.05, ** p〈.01, ***p〈.001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빈곤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주의집중 문제와 같은 사회정서적 발달, 그리고 아동의 공격성과 비행 등 여섯 가지 발달 산물을 대상으로 아동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3개년에 걸쳐 종단적으로 관찰된 빈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이 경험한 빈곤지속정도에 따라 6가지 발달산물을 비교한 결과, 학업성취에서는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사이의 격차가 두드러지고 지속빈곤과 일시빈곤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

아존중감과 주의집중 문제에서는 일시빈곤과 비빈곤 아동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지속빈곤아동과 일시빈곤아동 사이에서 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우울·불안, 공격성, 비행의 경우에는 지속빈곤 아동과 나머지 아동 사이에서 우울·불안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일시빈곤과 비빈곤 사이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은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는 서구의 연구와는 일치하지만,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는 일시적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서구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McLeod and Shanahan, 1993). 그러나 학업성취 이외의 발달산물에서는 빈곤지속정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지는 못하였다.

빈곤경험과 발달궤적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에서는 비빈곤아동은 해가 갈수록 성취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 변화방향을 보이나 빈곤아동은 해가 갈수록 성취수준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변화방향을 보였다. 또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비행 등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경우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모두 3년 동안 개선되는 변화를 보였지만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그 정도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발견은 아동의 빈곤경험이 한 시점의 발달 수준만이 아니라 이후의 발달궤적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아동기 빈곤경험이 성인의 경험에 비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Carneiro and Heckman, 2003).

다변인 분석을 통해 아동의 개인적, 가족적 특성을 통제한 결과에서는 학업성취에 대해서만 빈곤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다른 발달산물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빈곤지속성별 발달산물 수준의 차이나 빈곤경험과 아동발달궤적에서 나타난 상관정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한부모 가족구조나 부모학력변수의 영향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빈곤의 영향이 확인된 학업성취 산물을 종속변수로 하여 현재빈곤과 과거빈곤의 영향, 지속적 빈곤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모형에 따라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과거 빈곤 경험이 현재 빈곤과 독립적으로 학업성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 일관된 분석결과는 아니지만, 일시적 빈곤에 비해 지속적 빈곤이 학업성취에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구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빈곤이 여러 가지 발달산물 중에 학업성취에만 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유보적 해석이 필요하다. 서구의 연구도 빈곤의 영향이 학업성취 이외의 영역에서는 약하게 나타난 점, 우리나라의 빈곤이 외국과 같이 대도시 슬럼지역의 만성적 빈곤의 모습을 띄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빈곤의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초등학교 아동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빈곤의 누적적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시기 아동에게서 빈곤의 영향을 발견한 서구의 연구를 고려하면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련 연구 중 빈곤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경우가 거의 없어 이 발견은 본 연구의 분석자료 등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후속적인 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빈곤아동의 개입과 정책의 방향에서 교육적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

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개입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정서적 지원이 주를 이룬 반면에 교육이나 학습활동과 관련된 지원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교육의 분야는 사회복지의 분야가 아닌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상적인 교육열과 학벌주의 때문에 학력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학업성취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이라는 발달단계를 고려하더라도 다양한 자존감과 대인관계의 기초, 학교적응 등이 학업성취와 무관할 수 없다. 또 교육에 대한 가치가 높은 한국의 문화 및 사회구조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도 지속적 빈곤아동의 학습활동 지원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최일선 사례관리기관으로서 빈곤아동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는 단순 보호에서 나아가 해당 학년에 맞는 기초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아동에 대한 학업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이러한 강조가 다른 발달영역에 대한 개입노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아직 빈곤이 학업성취 이외의 발달산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빈곤도 빈곤의 만성화나 빈곤의 세대간 대물림 등 그 성격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빈곤 성격의 악화로 빈곤이 다양한 아동발달산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빈곤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학업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아동복지서비스가 예방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희경. 2003.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 『아동간호학회지』. 9(3): 301-308.

구인회.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구인회 · 박현선 · 정익중. 2006.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10(3): 269-295.

김광혁. 2008.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 이웃환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9(3): 115-138.

박현선 · 정익중 · 구인회. 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58(2): 303-330.

오경자 · 이혜련 · 홍강의 · 하은혜. 1998.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오승환. 2000. “소년소녀가장의 사회심리적 적응 결정요인.” 『사회복지연구』. 16(1): 117-141.

이경혜. 2004. “부모빈곤과 부모양육 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지』. 25(5): 1-9.

이민호 · 배내윤 · 이금섭 · 최기창 · 이미란. 2004. “경제적 빈곤이 아동 학교생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 · 행동장애 연구』. 20: 311-334.

이재연 · 백정재. 1997.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지』. 12(1): 71-93.

정소희. 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 5-34.

정익중. 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31: 133-159.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허남순・오정수・홍순혜・김혜란・박은미・정익중. 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서울: 학지사.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Becker, G. S., and N. Tomes,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S1-S39.

Carneiro, P. and J. J. Heckman, 2003. Human capital policy. In J. J. Heckman and A. B. Krueger (eds.), *Inequality in America: What role for human capital policies*. Cambridge, MA: The MIT Press.

Coie, J. D., and S. Miller-Johnson, 2001. “Peer factors and interventions”. In R. Loeber and D. P. Farrington (Eds.), *Child delinquents: Development, intervention, and service needs* (pp.191-20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Conger, R. D., X. Ge, G. H. Elder, F. O. Lorenz, and R. L. Simons,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Duncan, G. and J. Brooks-Gunn 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Duncan, G. J., J. Brooks-Gunn, and P. K. Klebnaov. 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 296-318.

Haveman, R., and B. Wolfe, 1995. “The determinants of children’s attainments: A review of methods and finding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3): 1829-1878.

Korenman, S., J. E. Miller, and J. E. Sjaastad, 1995. “Long-term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1): 127-151.

Mash, E. J., and D. J. A. Dozois, 1996. “Child psychopathology: A developmental-systems perspective.” In E. J. Mash and R. A. Barkely (Eds.), Child psychopathology (pp. 3-60). New York: Guilford Press.

Mayer, S. 1997. *What money can't bu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McLanahan, S., and G. Sandefur, 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McLeod, J. D., and M. J. Shanahan,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351-366.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2): 185-204.

McLoyd, V., T. E., Jayaratne, R. Ceballo, and J. Borquez, 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Child Development*, 65: 562-589.

Pagani, L., B., Boulerice, and R. Tremblay, 1997. “The influence of poverty on children’s classroom place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G. Duncan and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 311-339).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eidman, E., A. LaRue, J. L. Aber, C. Mitchell, and J. Feinmann, 1994. "The impact of school transitions on the self-system and perceived social context of poor urban youth." *Child Development* 65(2): 507-522.

A Pane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Ku, Inhoe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Hyun-Sun
(Sejong Univeristy)
Chung, Ick-Joong
(Ewha Womans University)
Kim, Kwang-Hyuk
(Jeonju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 development outcomes including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depression/anxiety, attention problems, aggression, and delinquency. The poverty experience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are longitudinally observed during 3 years between the 4th grade and the 6th grade. When development outcomes are compared among persistently poor children, transitory poor children, and non-poor children, academic achievement is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The analyse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overty status and developmental trajectories show that academic achievement among non-poor children has improved over time, while the level of poor children's achievement has decreased. The result also shows that problematic behaviors such as attention problems, aggression, delinquency has improved over time among all the children. Yet, the gap between poor and non-poor children has not decreased. The multivariate analyses indicate that the effect of poverty remain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academic achievement after children's individual and familial characteristics are controlled. Past experiences of poverty in addition to the current poverty affect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istent poverty has a stronger effect than transitory poverty on academic achievement, although the findings are not consistent across all the estimated models.

Key words: poverty,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al trajectory, academic achievement, socio-emotional development, problematic behaviors

[논문 접수일 : 2008년 10월 23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1월 31일]